

해남군 “전국 최정상 검객들 해남 우슬벌로 총출동”

오는 15~24일까지 제55회 회장배 전국남녀중별펜싱선수권대회 개최

해남군이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를 본격 유치하며 스포츠 메카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다진다.

해남군은 해남 우슬국민체육센터 일원에서 오는 4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10일간 제55회 회장배 전국남녀중별펜싱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초등부부터 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실업부까지 전 중별 581개 팀, 4,000여명의 선수단 및 관중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 펜싱선수권대회로, 우리나라 펜싱 유망주와 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군 직장운동경기부로 펜싱팀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동계전지훈련 등을 통해 펜싱종목의 대규모 선수단을 유치하는 등 펜싱종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오면서 매년 펜싱선수권대회를 유치해 오고 있다.

이번 대회 또한 대한민국 펜싱의 저변 확대와 우수 선수 발굴의 중요한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준 높은 경기를 통해 한국 펜싱의 미래를 가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군은 연인원 대회기간 2만 1,000여명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선수단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경기장 운영 및 안전관리, 숙박·음식업소 연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쾌적한 경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대회 기간 중 선수단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초콜릿거리 및 해남매일시장



청년물과 연계한키링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상권과 연계한 체류형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경기 개최를 넘어 지역 상권 방문을 활성화하고, 체험형 관광 요소를 접목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국 규모의 펜싱대회를 해남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참가 선수단이 스포츠와 지역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동계 전지훈련과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세계적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진도군, 진도아리랑베이스볼타운 조성 본격 추진 관광 복합단지 조성으로 전지훈련·전자스포츠 메카로 개발

진도군이 스포츠와 관광,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진도아리랑베이스볼타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라남도가 4월 초에 승인한 ‘진도아리랑마을관광지 조성계획’에 이어 군 관리계획 등 진도군의 고시(인규)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사업은 진도군 임하면 상관리 일원의 약 3만 5,000평 부지에 스포츠 및 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야구 관련 기반 시설(인프라)을 중심으로 전자스포츠(E-스포츠)와 문화 콘텐츠 시설, 그리고 호텔까지 결합한 ‘새로운 스포츠 관광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베이스볼타운에는 에어돔 야구장 1면과 국제규격 야구장 2면 등 총 3개의 야구장이 조성돼, 사계절 훈련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며 특히, 겨울철에는 전국 야구단의 전지훈련과 스포츠 훈련(트레이닝)의 거점 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지 내에 약 200객실 규

모의 3층급 관광호텔을 건립하고, 전자스포츠(E-스포츠) 경기와 문화 콘텐츠 관련 시설도 함께 도입해, 연중 운영이 가능한 스포츠 및 문화 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관광호텔의 경우 지상부 10층을 조립식 건축 공법(모듈러 공법)으로 건설하기로 해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업은 민간 투자자들이 초기 단계에서 사업 관련 용역비를 선투자하며 토지 매입, 기반 시설 조성, 시설물 건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업 준비 과정에서 약 30억 원 규모의 민간 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아리랑베이스볼타운은 스포츠와 관광,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이라며, “전국 단위 스포츠 행사와 다양한 콘텐츠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now naju
나주방문의 해
60년 전도 용인의 거리, 용안·안우·장구비꽃의 향연

제22회
영산포
홍어·한우
축제

양귀비꽃 미식 대향연

2026 05.22.(금) - 24(일) 3일간
나주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양귀비꽃밭 일원

주최·주관
나주시
영산포 홍어·한우축제 추진위원회

11~12일 영암서 가족 참여형 모터스포츠 축제

국제자동차경주장서 ‘KIC챌린지레이스’ 120여대 역동적 주행

‘2026 KIC 챌린지 레이스’ 개막전이 11~12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전라남도가 모터스포츠 대중화와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행사로, 카트체험·가상레이싱 등 가족 참여형으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주)코리아모빌리티그룹(KMG)이 기존 ‘KIC-CUP 투어링카 레이스’를 아마추어 선수의 프로 진출 확대를 목표로 새롭게 개편한 대회다. 특히 올해는 총 4전 중 2전을 아마추어 대회 최초로 F1 코스(5.6km)에서 개최하게 돼 모터스포츠 관계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F1 코스는 국제대회나 전남 GT 등 대규모 대회 위주로 운영됐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아마추어 레이서도 세계적 수준의 코스를 주행할 기회를 갖게 됐다. 또한 라운드별 포인트를 합산해 시즌 챔피언을 가리는 전문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해 대회 질을 한 차원

높였다. 이번 개막전에는 레이싱 전용 차량인 프로토타입을 비롯해 벨로스터N, 토요타 GT86 등 다양한 국내외 차량 120여대가 7개 종목에 참가해 박진감 넘치는 주행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객을 위한 콘텐츠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도입한 문화행사 브랜드 ‘모토조이(MOTO JOY)’를 가족 친화형 프로그램으로 꾸며 지역 축제로서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선수와 차량을 눈앞에서 만나는 그리드워크를 포함해 서킷버스투어, 카트체험, 가상레이싱, 무선조종 자동차(RC) 체험, 실내놀이방 등 다채로운 무료 프로그램이 현장 점수를 통해 운영된다.

장영철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입문부터 프로 육성까지 아우르는 이번 대회가 모터스포츠 생태계를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스피드와 복합문화가 어우러진 특화된 지역 축제

로 발전하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온라인(SLTV Sports)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상세한 정보는 국제자동차경주장 공식 누리집(www.koreacircui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기자



광양시, 제65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종합 1위 향해 출전

종목에 선수단 436명 출전... 지난해 종합 3위 넘어 정상 도전

광양시는 오는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구례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65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 종합 1위를 목표로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7,200여 명이 참가한다. 광양시는 검도, 골프, 궁도, 농구 등 23개 전 종목에 선수

230명과 임원 206명 등 총 436명으로 선수단을 꾸려 출전한다.

광양시는 ▲2022년 종합 4위 ▲2023년 종합 2위 ▲2024년 종합 4위 ▲2025년 종합 3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이어왔다. 시는 이번 대회에서 지난해 성적을 넘어 종합 1위 달성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지난 3월 21일부터 종목별 강화훈련에 들어가 경기력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4월 9일 오후 6시 광양국민체육센터에서 선수단 결단식을 열어 대회를 앞둔 선수단의 각오를 다질 예정이다.

시는 선수단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총 2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훈련비와 참가 경비, 간식비 등을 뒷받침하고, 19인승 버스를 운영해 이동 편의도 제공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대회를 위해 성실히 준비해 온 선수단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며 “선수들이 그동안 쌓아온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65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식은 4월 10일 오후 4시 구례공설운동장에서 열리며, 광양시 선수단은 19번째로 입장할 예정이다. /광양/신선호 기자